

대출금리 ↓ 예금금리 ↑ ... 꼬리내린 은행들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3→1개월'로 부담 커진 은행, 금리 조정 눈치싸움 우리銀 주담대 최고 금리 6%대로 ↓ 반면 하나銀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

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은행장들.

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은행장들.



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은행장들.

● 금리 압박 나선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3분기부터 은행권 예대금

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압박도 부담이다.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숫자를 공개하고 경쟁사들과 비교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한 목소리다.

은행권은 서둘러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24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 금리를 6%대로 내렸다. 우리은행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5.48~7.16%에서 연 5.47~6.26%로 조정돼 금리 상단이 0.9%p 낮아졌다.

또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으며, 케이뱅크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p 낮췄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22일 비대면으로 보유 중인 주담대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했다.

대출금리는 내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인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2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p 인상해 만기 1년 이상 가입 고객에게 연 3% 이자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22일 가입 기간 12개월이면 최고 연 3%, 18개월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 중간배당 특수 없이 은행주 고전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고전도 이어지고 있다. 4대 금융주(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지난 주(20~24일) 평균 5.14% 하락했다. 개별로 보면 KB금융 -5.95%, 신한지주 -3.37%, 하나금융지주 -5.40%, 우리금융지주 -5.86%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04%)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이다. 특히 28일까지 매수 시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중간배당 특수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주는 금리를 인상하면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상승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며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강도 긴축이 예고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논란도 일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의 금리 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간섭할 의사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해외에서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농협은행 'NH올원뱅크' 새롭게 오픈

NH농협은행의 모바일뱅킹 NH올원뱅크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메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또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해외에서 카드 없이 이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해외QR결제' 서비스를 추가했고, 농협의 멤버십포인트인 NH포인트를 통한 예·적금 상품도 가입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도 강화해 NH올원뱅크 이용고객은 소비내역과 자산현황 등을 담은 '나만의 맞춤 메시지'를 제공받아 자산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메인 화면 '카테고리별 콕메뉴', 눈이 편한 한 '다크모드', '계좌잔액 숨기기'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하반기 이후 주식·채수·채도, 소액 금 투자서비스 등의 뱅킹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고객의 금융과 생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대표(왼쪽)와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유망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KB국민은행-한국인터넷진흥원 '맞손'

KB국민은행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망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사업 연계 지원, 블록체인·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교류 및 전문가 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핀테크 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하나금융투자 새 이름 '하나증권'

7년만에 탈바꿈, 내달 적용 글로벌 IB 도약 '드라이브'

하나금융투자가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24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변경된 사명은 7월1일 시행한다.

하나금융투자는 예전 대한투자자산

권과 대한투자증권을 거쳐 2005년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2007년부터 8년간 하나대투증권을 사명으로 썼다. 이후 2015년 현재의 이름인 하나금융투자로 교체한 뒤 7년여 만에 다시 하나증권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번 사명 변경은 하나금융의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라는 새 비전 선포에 맞춰 실시했다. 사명 변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은 물론 하나증권만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



7월1일 사명을 변경하는 하나증권. 사진제공 | 하나증권

다. 하나금융 브랜드와 증권업에 대한 직관성,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살리기 위해 이뤄졌다. 2030 MZ세대는 물론 국내·외

투자자에게 친숙하고 신뢰 받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하나증권이라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이미지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를 만드는 영속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고객, 직원, 사회 모두가 연결된 금융을 만들어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최근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6조 원 시대를 여는 등 대규모 투자는행(IB)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와 비즈니스 확대 등 글로벌 IB로서 한발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8일(화) 음력: 5월 3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에 얽매고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는 행동을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낭비에 주의하라.	문서변화에서 명제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집안이나 친척문제도 바쁜 일이 생겨난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화를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에 불족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며 곤란만 야기시킨다. 변화가 있는 날이다. 대인관계에 신경쓰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미발탁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인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겠으나 무난히 해결 될 것이다.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결단력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분주한 활약이 기대된다. 주변의 도움으로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으니 주변인들과의 연경이나 다툼에 주의하라. 사업 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겠고 의외의 성과가 기대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조폭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오게 되고 뜻하지 않은 투자 운이 생기며 선배나 주위의 도움으로 원하던 일이 성사될 것이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하지 못하다. 그안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오늘의 날씨			28일(화)		
서울 60/60	인천 70/60	춘천 80/80	24 26	23 26	23 26
강릉 60/60	대전 30/20	전주 30/30	27 31	25 30	25 31
광주 30/30	대구 30/30	부산 60/60	25 30	25 31	23 26
창원 60/60	제주 20/20	지역	23 27	27 33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5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